

August Konkell 박사, 잠언, 세션 22

© 2024 August Konkell 및 Ted Hildebrandt

잠언에 관한 일련의 강연 중 마지막 강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묵상에서 잠언의 마지막 장을 다루었습니다. 실제로 마지막 시는 잠언에 나오는 힘센 여인에 대한 역행어입니다. 잠언에 대한 대화를 통해 여러 번 언급했듯이 반복되는 주제가 있습니다.

유용한 일 중 하나는 특정 주제에 관한 잠언을 함께 모으는 것입니다. 잠언 자체는 그러한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주제 중 일부를 선택하고 잠언이 그에 대해 말하는 내용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잠언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속담입니다. 잠언의 경우 인간 관계에서 사실임을 알 수 있는 관찰인 격언이며 때로는 잠언에서 관찰한 것들의 비유에 기초합니다. 과학적인 원인과 결과의 의미가 아니라 연관성의 의미로 자연 세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동쪽에서 바람이 불면 제 경우에는 비가 올 거예요. 그것에 대해 과학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연합일 뿐인데, 잠언은 그런 식으로 세상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언에 대한 마지막 묵상에서 하고 싶었던 것은 잠언에 관한 다양한 종류의 잠언의 관점에서 묵상하는 데 매우 유용한 잠언에 있는 매우 중요한 모티브의 한 예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것. 우리는 이미 이 잠언 중 일부를 다루었으므로 여기서는 약간의 반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잠언을 서로 관계로 가져오고 서로뿐만 아니라 다른 지혜 글과도 연관시키려고 합니다. . 이제 우리의 주제에 관해 할 말이 엄청나게 많은 또 다른 지혜서가 있는데, 그것은 전도서입니다.

제가 다루고 싶은 주제는 여기 화면에서 볼 수 있듯이 일과 부에 관한 것입니다. 이제 나는 두 가지가 여러 면에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로 묶었습니다. 물론 일에만 집중할 수도 있고, 부에만 집중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시간이 돈이고 시간이 무엇인지 너무 자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함께 관찰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하는 데 들이는 노력이며, 그것이 우리가 부를 창출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이 두 주제 사이에는 연관성이 있으며 특히 우리가 히브리어로 코헬렛이라고 부르는 사람이나 설교자에 의해 발전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이 일에 대해 말하는 것과 일이 무엇이어서 하는지에 대한 관점을 제공하기 위해 잠언이 일에 대해 말하는 것과 설교자의 생각 중 일부를 연결하려고 합니다 .. 그래서 저는 일에 관한 우리의 경험부터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에 관한 우리의 경험에 있어서 실제로 중요해지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언급한 것 중 하나는 etzev 라는 단어이거나 보트입니다. 어느 쪽이든 쓸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그것은 고통스러운 일이고 투쟁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어 단어는 toil입니다. 설교자는 inyan 이라는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는 본문을 읽으면서 여기에서 그 단어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단어는 분주함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항상 점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두 가지는 우리 삶에 있어서 진실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다양한 시점에 우리가 하는 일이 수고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즉, 정말 어떤 종류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에너지도 많이 소모하며, 불행하게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고통스러운 부분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성경적 비유를 사용하자면, 우리가 어떤 일에 엄청난 노력을 들이고 나면 그것이 불에 타버리기 때문입니다. 즉, 결국 우리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을 이러한 분주함으로 경험하는 이유에 대한 성경적 견해는 무엇입니까? 아니면 왜 우리는 일을 이런 수고로 경험합니까?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하는 구절 중 하나가 시편 127편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가족에 대한 강조 때문에 시편 127편을 기억하는데, 시편 127편은 “자녀는 여호와와 기업이요, 이것이 가득한 화살통을 가진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하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군인에게 화살이 자산인 것처럼 어린이를 훌륭한 자산으로 비교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항상 사실입니다.

우리는 인구 과잉과 그 밖의 모든 것에 대한 편집증이 있는 현 시대에 그 사실을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문제는 인구 과잉이 아니라 인구 감소가 될 것이라는 점은 매우 분명합니다. 이것은 이미 중국에서 빠르게 일어나고 있으며 인도에서도 일어날 예정이며 미국에서도 매우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인구는 실제로 줄어들고 있으며 노인이 너무 많아 단기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는 여호와와 기업입니다. 탄생은 놀라운 일이다.

잠언 31장의 현숙한 여인이 말한 대로, 자녀를 낳고 가정을 꾸리는 것보다 여인의 강인함을 더 잘 보여주는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나 시편 127편 역시 이렇게 시작됩니다. 집을 짓는 자가 건축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헛되도다.

제 생각에 그것은 물리적인 집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한 언급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집을 약속하셨는데 시편 127편 1절은 다윗의 집을 언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의 집을 건축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에게 맡겨지자 그의 자녀들은 서로를 죽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비로소 다윗의 집이 있게 되고, 그 일은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시편 122편은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성을 지키는 것이 헛되고 고통의 떡을 먹는 것도 헛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서 바울이 말한 대로 먹어야 하기 때문에 평생을 일한다는 것입니다. 일하지 말고 먹지도 마십시오. 이러한 국가 사회 프로그램이 없던 시절에는 이는 매우 사실이었습니다.

나는 그것이 나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일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너희가 수고의 떡을 먹은 것이 헛되도다 나는 다만 왕을 받으리라, 여기서 마소라 본문은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즉, 우리가 우리의 일과 수고에 대해 주님을 신뢰할 수 있다면 때로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밤에 잠을 잘 수 있습니다. 나는 주로 손으로 일을 하고 부모님이 9명의 자녀를 키우던 농장에서 왔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내가 지금 1년 동안 버는 것보다 더 적은 수입으로 그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물론 그들은 우리가 먹는 거의 모든 음식을 재배했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우리가 입는 많은 옷을 직접 만드셨습니다. 그녀는 잠언 31장의 현숙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한 일은 밤에 잠을 자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는 밤에만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친구가 되었을 때 그는 소파에 앉아 편안하게 쉬면서, 그가 들어본 적이 없는 멋진 대화를 많이 나누며 잠을 잤습니다.

주님께서서는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것은 그들의 노고에 대한 일종의 보상이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런 수고가 있습니다.

왜? 글썄, 그것은 우리를 창세기와 지식의 나무로 다시 데려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 무엇이 좋은지 알아보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이 좋은지 알기로 결정했을 때, 갑자기 우리는 '아, 여기 내 분야에서 자라나는 것이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잡초라고 부릅니다. 나는 내가 생각했던 방식으로 작물을 재배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하나님은 하와에게 아이를 낳는 것이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장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녀의 아들인 가인이 아벨을 죽인다. 한 아이를 낳고 다른 아이를 죽이는 엄마의 고통은 이제 상상조차 할 수 없다. 물론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게 현실이에요. 우리 모두가 인간으로서 집합적으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좋은지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우리의 선택이 이 옛 세폰(etsev), 이 옛 세폰(etsepon)을 가져왔습니다.

이 단어는 이브와 가족과 관련하여 그리고 아담과 그의 일과 관련하여 사용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창세기는 과거의 어떤 세계를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의 세계를 실제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세계가 어땠는지에 대한 매우 대략적인 세부 정보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가인이 어느 도시에서 왔는지, 그가 다스리던 도시에 대해 아는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어디에 있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완전히 개략적입니다.

우리는 그의 아내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것은 과거의 세상에 대해 우리에게 말하는 요점이 아닙니다. 그 요점은 우리에게 세상에 대해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무엇입니까? 글썄요, 설교자가 말했듯이, 그것은 바쁜 일입니다. 이제 설교자는 사치를 누렸습니다. 그의 사치는 실제로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욕망의 만족을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엇을 발견했는가? 글썄, 그가 발견한 것은 비록 당신의 수고와 일이 막대한 부를 얻고 당신이 갖고 있는 바람직한 모든 것을 만족시킨다고 해도 그것은 당신의 삶을 더 좋게 만드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물론 설교자의 말이 절대적으로 옳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사실입니다. 단순히 부를 얻기 위한 수고, 또는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고, 운동은 가장 만족스럽지 못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바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그것은 우리의 시간을 많이 차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삶에 다가오는 시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태어날 때, 죽을 때. 평화의 때요, 전쟁에 나갈 때입니다. 왜 이런 시간이 있어야 합니까? 평화의 때와 전쟁에 돌입할 때라는 것이 나에게 가장 인상적입니다.

전쟁은 누가 만드는가? 사람들. 글썄요, 사람들이 전쟁을 한다면, 확실히 사람들은 전쟁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글썄,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완전히 불가능한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다시는 침략을 하지 않겠다 는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물론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그로부터 10년 후인 1939년, 히틀러는 폴란드를 침공했습니다. 더 이상 공격성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우리는 침략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엔 무엇이 있었나요? 온통 전쟁의 증폭. 물론, 국내 국가들은 끊임없이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동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공격적으로 침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멈출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바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세상을 두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큰 소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과 우리 자신의 수고는 신비스러운 것입니다.

전도서 8장 16절과 17절에서 설교자가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저는 시편 90편을 아주 여러 번 설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흠으로 돌아가게 하신다는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다. 그러나 우리의 세월은 너무 제한되어 있습니다. 70은 모세가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건강하고 강하다고 해서 80이 되어도 수고가 많다면. 그리고 그들의 자존심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지? 모세는 기쁨을 위해 기도하고 성취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잠언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일에서 찾는 것은 기쁨, 성취, 만족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 모든 일을 취하셔서 그의 일의 일부로 삼으실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의 일이 만족스럽고 의미 있게 되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일은 삶에 적합하다.

우리는 잠언 10장에 나오는 솔로몬의 모음집 중 첫 번째 잠언의 아름다운 대칭성부터 시작했습니다. 나태는 가난을 만들고, 근면은 부를 만듭니다. 그런 행위의 결과.

물론 여러분은 '오'라고 말하겠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나는 부유하면서도 게으른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중 결국 끊임없이 가난해지는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필요와 삶을 위해 제공해야 하는 모든 것이 일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잠언이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개미는 우리에게 이것에 대해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잠언 6장에서 이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여름에 음식을 모아야 할 때 수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화 중에 잠언 24장, 30장부터 34장까지는 실제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게으른 자의 땅을 지나가다가 들판에 잡초가 자라는 것과 울타리가 무너진 것과 완전히 비생산적이며 궁핍을 초래하는 전체 장면을 봅니다. 그래서 일이 없으면 손실이 있습니다. 나는 농장에서 그런 사람 중 한 사람을 방문하고 있던 목사님을 항상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는 마당과 동물과 그 밖의 모든 것의 아름다움을 본 후, '아, 여기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농장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농부는 말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름다운 농장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소유하셨을 때 당신도 그것을 보았어야 했습니다. 자, 그것은 매우 적절한 관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일을 위해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심고 지키라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창세기 2장에는 창조가 시작될 때 땅을 일구는 사람이 없다는 애도가 나옵니다. 일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발견한 것은 이 일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제 유용합니다. 나는 잠언 14, 23, 24장을 좋아합니다.

일할 메리트가 있습니다. 일이 있는 곳에는 유익이 있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제는 기대했던 이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수고가 기대한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아무런 장점도 가치도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항상 장점이 있고 항상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설교자는 시작하자마자 그의 작은 교훈 전체의 결론을 제시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곳에서 일했고, 이 모든 부를 가졌고, 내 모든 욕망을 충족시켰습니다. 그리고 나는 무엇을 발견했는가? 가장 좋은 것은 매일 내 일을 즐기고 매일 내가 먹는 음식을 즐기는 것 입니다. 그리고 내가 한 일을 즐길 수 있다면, 이 수고 속에서 어느 정도 만족을 찾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음식으로 만족할 수 있다면, 나는 사실상 최고의 것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실 때 바로 창세기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의 본질입니다. 이제 명심해야 할 중요한 일에 관해 말할 수 있는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을 하면 부를 창출할 수 있고, 부를 창출하는 일은 좋은 일이지만 명예로운 방법으로 창출되지 않으면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잠언 8장에서 지혜가 하는 일을 살펴보았습니다. 잠언이 사람, 즉 의인화하여 말하는 전체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거기에서 말하는 것 중 하나는 명예로운 부에 관한 것입니다.

즉, 그녀는 지혜란 그 일의 이익과 그 일로 생산되는 부가 올바르게 선하도록 일할 수 있는 방식이며, 그것이 바로 당신이 갖고 싶은 것임을 뜻합니다. 이제 우리는 잠언 16장 26절을 잠깐 읽어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제 우리가 욕망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면 그것은 노예가 되고, 그것이 노예가 되는 이유는 우리의 욕망이 결코 완전히 충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를 위해 일하는 것은 나쁜 사업입니다. 여기에 설교자의 관찰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당신은 평생 일하다가 불운과 불행을 통해 모든 부를 잃고 자녀에게 물려 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글쎄, 그것은 모든 종류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뭐, 열심히 일해서 아이들에게 물려줄 게 있다고 말하는 것은 오류입니다. 우리가 부를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품성과 영향력과 좋은 가르침의 모범 외에는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잠언에서 말했듯이 부는 날개를 달고 날아가 버립니다. 그대로 없어졌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부를 위해 일하고, 심지어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일할 것이라는 생각을 조심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결국 아무것도 남기지 못할 수도 있고 그것은 아주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는 우크라이나에 있는 친애하는 친구들, 그리고 그들 중 많은 수가 푸틴의 폭탄으로 인해 평생의 업적을 모두 잃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통제할 수 없었지만, 그들이 자녀들에게 남기게 될 모든 것은 그들 중 많은 사람들에게 잔해일 뿐입니다. 특히 카르키프 시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더 많은 것에 대한 욕망은 함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며, 설교자는 전도서 6장 7절부터 9절의 잠언에서 우리가 관찰한 것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얻는 지혜? 항상 더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조차 간단히 무시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그것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단지 당신이 현명한 사람이고 당신이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이익이 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다 보면 때때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추구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즉, 당신은 길 건너편에 보이는 아름다운 들판을 원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원하고 갈망하다 보면 당신이 가질 수 있는 것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보는 기쁨입니다. 그 구절에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관찰한 바와 같이 여기 잠언 23장의 지혜의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부는 매우 일시적인 이익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가 일에 관해 말하는 주요 요점입니다. 그 일은 그 자체로 좋은 목적이다.

그렇다고 해서 바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수고가 될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신이 즐길 수 있는 이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하면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일이 당신에게 매일 필요한 것을 가져다 주고, 당신이 주변 사람들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아는 지혜를 갖고 있다면 일은 그 목적을 모두 달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일을 부의 축적이나 명성과 권력의 획득, 또는 이런 모든 종류의 일로 바꾸려고 한다면 일은 당신을 노예로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말 힘든 일이 될 것이고, 결코 벗어날 수 없는 분주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우리를 하나님의 이상으로 되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상은 무엇입니까? 일은 좋은 것이고 일은 필요한 일이다.

얼마 전 우리 교회에서 일에 관한 세션을 진행했는데, 그것은 언제 우리가 은퇴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되었는가 하는 질문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즉, 인생에서 일을 그만두는 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질문을 생각한 이유는 모두가 나에게 항상 묻기 때문입니다. 노인으로서 은퇴하셨나요, 아니면 언제 은퇴하실 예정인가요? 그리고 은퇴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했습니다. 은퇴라는 사업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글썄요, 그게 어디서 나오는지 아시나요? 이는 19세기에 시작되었지만 특히 대공황기에 발효되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청년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이 대두되던 때. 그래서 일부 정치인들은 노인들에게 일할 권리가 없으며 일을 그만두면 돈을 주겠다고 해서 일을 그만둘 필요가 없도록 하고 젊은이들에게 돈을 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일자리를 빼앗을 수 있고, 우리는 더 나은 사회를 갖게 될 것이며, 그것을 은퇴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우리는 은퇴를 모든 사람이 해야 하는 성경적 의무적인 일로 거의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일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음, 당신은 일종의 폭군인 셈입니다. 글썄요, 그건 인간의 생각이 아닌 신성한 생각이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에게 확신시켜 드리겠습니다. 신성한 사고방식에서 일은 삶의 모든 단계에 적합한 삶의 일부입니다.

물론, 나는 30대, 40대처럼 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지 내가 73세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방식으로든 일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아, 연금이 있어서 정말 기쁘네요. 저를 믿으세요. 저는 그들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완전한 생활비를 벌 수 없습니다. 은퇴에 대해 모든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은퇴한 사람들은 모두 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종교로 만들지 마십시오.

일은 삶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일이 있어야 할 대로,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노예로 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의 메시지입니다.

잠언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는 Dr. August Konkel입니다. 이번 세션은 22번 '일과 부'입니다.